은혜보좌로 담대히 나가면 큰일 날 사람

(히4:12~16)

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13.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
14.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은혜보좌로 담대히 나가면 큰일 날 사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마지막에 읽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너무나 기가 막히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움을 내게 좀 주셨으면 좋겠다고 느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구할 것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도움을 구하면 그 도움을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기가 막힌 거죠, 정말 마음에 착착 달라붙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은?
그런데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빠뜨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4장 16절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4장 전체, 그리고 앞에서 이어지는 3장, 지금 계속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큰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완고한 마음을 갖게 됨으로써 믿음에서 떠나는 것에 대해 경계를 시키는 겁니다.
출애굽 해서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면서 그들이 선민이었고, 그들을 하나님이 갖가지 재앙의 기적을 통하여 해방시켰고, 홍해를 기적처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는데, 그 광야에서 그들이 완악함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하나님께 거역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다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완고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발견되었던 이 완고함에 대한 이해가 없이, 때를 따라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보좌로 완고함을 유지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보좌는 더 이상 은혜의 보좌가 아니라 진노와 심판의 보좌로 바뀌어버립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해 나가라!'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었는데, 이게 큰일 날 말씀이었다 이겁니다.
담대함이 영적인 무지함에서 나오는 것이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완고함이 뭡니까?
오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 말씀과 연관 지어서 우리가 생각하면, 예를 들어 내가 하고 있는 장사가 잘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서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사업이 좀 잘되게 해달라고.
그러나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 이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이렇게 나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보좌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기에 망정이지, 이런 상태로 보좌 앞으로 나갔다면 그냥 그 즉시로 죽었을 걸요?
완고함이 뭐죠?
장사가 잘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육체가 접하고 느낍니다.
육체가 접하고 느끼는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예속되어 따라갑니다.
마음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마음에 욕구가 불붙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사가 좀 더 잘되고,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이렇게 육체에 예속된 상태의 마음을 유지하는 게 완고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물 한 모금 안 마신 거예요.

따라서 이 육체는 굶주림에 대해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처절하고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므로 마음이 거기에 예속됐다면,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할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돌로 떡 만드는 것이 문제겠니, 모래로 시원한 콜라까지 만들어서 같이 먹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육체의 굶주림의 느낌에 마음이 예속되지 않으시고, 주님의 마음이 어디로 예속되시나 하면 하나님께로 예속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지금 육체가 40일 동안 물도 한 모금 못 마시고 떡 한 조각 못 드신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된다, 육체의 요구에 마음이 따르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가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완고함을 벗어나는 다른 길이고,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은혜의 보좌로 담대해 나갈지어다, 때를 따라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우리 육체로 느껴지는 느낌에 예속된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느낍니다.
육체가 이걸 느끼니까 아,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하고.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얻는 게 아니라는 얘기고, 그랬다가는 큰일 난다는 얘기를 우리가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은, '돕는 은혜를 위해 보좌 앞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보세요, 사업이 안 돼서 사업이 잘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것, 건강 때문에 기도하고, 자식 때문에 기도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이 세상일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보좌 앞으로 나갈 때, 보좌에 앉아계신 분이 누군지 알고 나가는 겁니까?
보좌에 앉아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세요.
'나를 가져라, 내가 너의 기업이다'
그래서 그분을 갖는 게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잖아요?
돈이 모자라서 도움을 요구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져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나라를 독립시키겠다는 욕구가 불붙고 있었습니다, 육체로 느끼는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그 느낌이 마음에 전달되면서 '독립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육체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장관 자리 하나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보좌 옆에 계실 때, 그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육체로 느끼면서 마음으로 간직했던 도움에 대한 필요성을 다 잊어버립니다.
이 세상일에 대해서 무슨 도움이 있어야 되는지를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 앞에 나갈 때는 이 세상에서 돈이 없어서 나갔지만 진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뭐가 부족하다는 느낌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그 하나님만을 갖게 되기를 소원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보좌 앞으로 나갈 때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나가느냐?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쫄려갖고 지금 기도를 시작하고 있지만, 결국 이 기도는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움으로써, 나는 돈에 대한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마음상태로 일어나서 다시 사업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보좌로 나간다는 말에 함축되어진 의미라는 겁니다.
가장 좋고 가장 귀한 분이 보좌에 앉아계시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분에게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필요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필요를 고집하게 되지 않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망각하게 돼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 논리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이 말씀을,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필요한 것을 육체로 느껴서 마음이 욕구하는 대로 가서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요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건 진짜 아주 크게 잘못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선이해를 두고 본문을 이해해 가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앞의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치 않음으로써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에 의해 돌림을 당하다 다 멸망당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과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완고한 점에서, 이 완고한 것을 구약성경에서 목이 뻣뻣한 자들이라고 하고 불순종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완고함이 뭐라고 그랬죠?
육체가 느끼는 느낌을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마음이 육체가 만일 배고프다면 '난 이 배고픔을 반드시 해결해야만 돼', 돈이 안 벌

리면 '돈이 벌리는 게 최선이야'라고 고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돈이 안 벌리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를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육체가 느끼는 것을 내 마음에서 받아들인 대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 이게 뻣뻣한 거거든요.
물을 조금 늦게 주시면, 육체가 갈증에 의해서 마음에서 욕구가 생기려고 그럴 때, 얼른 고쳐잡고, '아, 지금 몹시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물을 언제 주실지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가를 염두에 둬야 하는데, 그냥 물을 안 준다고 '나를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차라리 거기서 죽는 게 낫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저히 함께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의 상태로 함께 신혼여행을 지내듯이 지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멸절시켜버렸으니까, 우리도 그러한 완고함을 유지해서야 되겠느냐,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무슨 수로 이 완고함을 벗을 수 있을까?
당장 육체로 살다보면 육체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느낌이 주어질 때마다 마음이 곧바로 예속돼서 끌려가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저 사람은 왜 나를 미워할까, 나도 미워해야지, 이렇게 반응하면서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한 것에 대한 답으로 12절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 유명한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카~ 멋있지 않아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멋있는 말씀이니까 목사님들도 굉장히 자주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멋있잖아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이 뼈도 못 추린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내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이 찔리고 베이고 쪼개져가지고 각이 떠져서 산산조각이 나고, 내 생각과 뜻 자체도 완전히 공중분해 돼버려서 사라져버린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느냐? 완고함이 없어야 됩니다.

마음이 육체에 예속돼서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육체의 느낌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말씀에 대해 내 마음이 육체에 예속돼 있는 이 상태로부터 완전히 해체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은, 인간의 존재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어나야 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즉, 완전히 쪼개져서 분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뼈도 못 추리는 상황을 통과하지 않으면 완고함이 깨어질 수 없다는 얘깁니다.

이 얘기를 히브리서 저자가 왜 하고 있을까요?
자의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성경에 다 근거를 둔 얘기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수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면 수송아지에게 내가 지은 죄가 다 들어가지요, 그러면 수송아지 속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꼬리까지, 살과 뼈 내장 모든 곳에 내 죄가 들어가서 완전히 수송아지가 죄로 부패한 존재가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수송아지를 속죄받기 위해 번제를 드리는 이 사람이 직접 잡습니다.
그러므로 수송아지가 지금 나에요, 나.
번제를 드리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밝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사냥꾼들이 짐승을 잡아서 목을 따기 위해 목을 뒤로 젖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과 동일시되는 수송아지나 양의 목을 따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라고 생각하는 번제물들의 목을.
그렇게 한 다음, 그 피를 제사장들이 사방에 뿌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긴 다음, 그 짐승 한 마리 전체를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게 뭐에요? 목 잘라내고 다리 잘라내고 몸을 산산조각 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그 각을 뜬 것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머리와 기름을 빼서 올려놓고,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서 다시 올려놓고, 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다 불태워 없애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양날 선 검 같은 말씀에 의해서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이 찔러 쪼개진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수난 당하시고 죽으신 이 사건이 곧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죽으신 거예요? 나 대신 죽으신 겁니다.
수송아지 대신에 주님이 그 자리에 들어서신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주님이 채찍 맞아서 살이 찢기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창에 옆구리가 찔리신 이 모든 찔림이 주님의 사건이 말씀이 돼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나에게서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완고함이 깨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뼈도 못 추리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말씀으로 죽이는 겁니다.
주님의 수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전체를 내가 흡수하면서, 마음이 몸에 붙어서 쩔쩔매면서 몸이 느끼는 대로 끌려가던 이 종노릇하는 죄악의 상태가 완전히 각이 떠지고, 절단나지고 찔러지고 쪼개지고 박살나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완고함이 깨져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첫 단계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 14절에,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죽으신 주님, 그 사건이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수송아지가 각이 떠지고 불살라지는 것처럼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같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같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의 길이 곧, 우리가 보좌에 앉아계신 아버지와의 안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뚫어놓으신 길이라는 얘기에요.
이때 한 마디 덧붙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치 아니하는 분이 아니시다, 공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얘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느끼는 느낌에 따라서 마음이 계속해서 예속되려고 하는 경향을 띤다는 것을 주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시험을 받으셨지요.

그 모든 순간에서 우리가 완고함으로 빠져버립니다, 마음이 육체에 예속된 쪽으로 빠져가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하나님 쪽으로 빠져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말씀이신 그 사건을 내가 받아들여서 같이 죽고 나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육체의 느낌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순간에 주님의 힘 때문에 하나님께로 마음이 옮겨질 수 있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 덧붙이는 것은, 그렇게 마음이 주님과 연합해서 승천하신 주님 따라 하늘로 올라가버리면, 그러면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육체의 필요가 있고 육체가 살아가야 되고, 육체의 삶을 통해 인생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마찬가지로 안식을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이 care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이 예속되어서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충족시켜주지 않아도, 이 육체가 가야 될 길, 육체로 인해서 진행돼야 될 삶을 위해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걸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두 가지라고 했지요, 그렇죠?
우리가 육체의 느낌에 예속돼서 마음이 끌려가려고 하는 순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 그대로 따라가면 완고함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시고 말씀이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우리가 송아지가 각이 떠지듯이 그렇게 육체에 예속된 내 마음의 존재의 구조 자체가 다 분해돼버리고 각이 떠지고 죽어버리면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 이 땅에 남아있는 육체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마음도 신경도 생각도 집어넣고 쓸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 누가 이 세상을 사느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놓고, 아담의 첫 번째 안식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다 준비해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 육체의 삶은 아버지의 뜻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게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때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해 나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라!
이게 무슨 얘깁니까?
'때를 따라', 중단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건,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완고함을 깨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고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에 진노를 받아 망한 것 아닙니까?
그 십자가로 완고함을 깨버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승천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끌고 안식으로 들어가신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안식으로 우리를 끌고 갈 것이고, 우리의 육체가 남은 삶은 하나님이 에덴을 준비해놓으셨던 것처럼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마음 놓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라.
그러면 이 땅에서 이 육체의 삶은 준비하신 뜻을 따라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때를 따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십자가에서 뼈도 못 추리는 경험을 통해서 완고함이 깨어지고 아버지께로 나감으로 안식을 누리며 살자!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두 가지 뼈도 못 추리는 경우가 있어요.
완고함을 유지함으로, 내 육체가 느끼는 대로 마음에서 소원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내 판단에 의한 내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 고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왜냐하면 완고함이 지속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이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진노를 받아 뼈도 못 추리지 말고, 십자가 붙잡고 내가 미리 뼈도 못 추리는 상태를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얼씨구나 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내가 알아서 뼈도 못 추리는 상황.
양날 선 검 같은 십자가사건인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번제로 드려지는 수송아지같이 각이 떠져서 죽는, 왜냐하면 우리 속에 그렇게 깊이 죄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한 경험을 통해 참 안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양날 선 검 같은 수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사건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그렇게 각이 떠져 죽게 하시고, 그럼으로 완고함이 깨어지게 하시며, 마음은 하나님께 가 안식을 누리고 육체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므로 이 땅에도 안식이 주어질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